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2호

김현수전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인터뷰

첫 계약금 뜯긴 선수들이 "부당하다" 말하지 못했던 이유

화강윤 SBS기자

U-23아시안컵 축구대회 돌연 불참...월드컵참가여부 지켜보아야

북한 기지개? 스포츠 시동 걸고 외교전 본격화할까

김소정 미디어팬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박인비, IOC 선수위원 한국후보 내정

권종오 SBS기자

3~4위 결정전서미국에 3-1 승리..."감격스럽다"

남자 배구대표팀, 30년 만에 U-19 세계선수권 동메달 쾌거

김경윤 연합뉴스기자

70대 구조하고 자리 떠난 양서우선수

"어떤 여자가 망설임 없이 뛰어 들었다"...파도 휩쓸린 70대 구조한 女유도선수

박상훈 파이낸셜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첫 계약금 뜯긴 선수들이 "부당하다" 말하지 못했던 이유

한국체육대학 체조부가 적어도 10년 넘게 졸업생이 실업팀으로 입단하면서 받은 계약금 10%를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왔다는 사실이 끝까지판다팀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공식 계좌가 따로 있는데도 조교나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안 내는 선수들에게 독촉 전화도 했습니다. 명목은 후배들 옷값이나 공용품을 사는 데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처는 감감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됐던 계좌 내역을 입수해 살펴보니 대부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되짚어봤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 저항할 수 없었는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선배들이 다 내서 저희도 꼭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걸 알고는 있는데 선불리 누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운동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교수 말은 법이었어요. 아무도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의 환경 속에서 선수들은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자발적 기부'를 강요받아 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0년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낸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 성추행 사건과 스포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은 당시 이 조사를 이끌었던 김현수 전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만나 이번 '계약금 강제 납부'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Q. 조교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자발적이라 볼 수 있을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선수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됐든 조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이게 어디에 쓰이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그냥 달라고 하니깐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후에 "용처가 어디에 쓰였습니까?"라고 묻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고 나면은 기부자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체육계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같은 집단 안에서 막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권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때 징계 양정을 굉장히 가볍게 한다면 조사할 지연시켜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그래서 최초 신고자들을 지치게 만든다든지.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또 현장에 복귀해서 경기장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들도 내부에서 묻히는 이유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피해를 드러냈을 때 본인이 오히려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결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 버티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빠르게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게 체육계에 팽배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례처럼 계약금의 일부를 원치 않아도 돈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Q. 문제가 드러나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체육계의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건가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문제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Q. 엄격한 선후배 상하 관계, 수직적인 선후배 관계 등 수직적인 문화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체육 집단은 실제로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 서열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서열화 속에서, 상명하복 하는 구조 속에서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조직에 대한 배반, 배신 이런 행위들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불리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Q. 지도자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본인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서 많은 팀들이 서로 원하는 경우는 오히려 본인의 몸값을 좀 올려서 잘 진출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도자가 상대 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밀비재합니다.경기가 열리는 대회장 안에서도 지도자의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경기장에 가면 심판이라든지 다 동문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취직할 때도 대부분 지도자들이 전 지도자한테 물어봅니다. "인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손해는 개인이 봐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선수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쪽 봐왔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Q.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권고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내놨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개선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한국 스포츠 전반의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원인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이 좁은 저변에서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을 데리고 국위선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압적이고, 잘못된 관행들도 다 묻힐 수밖에 없고,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Q. 스포츠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목표로 운동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거 체육을 관장하는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조에 보면 우리나라가 체육을 진흥시키는 목적은 국위선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위 선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은 저변 속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선수들에 대한 혹사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권들도 침해가 되고 또 운동을 더 시키기 위해서 폭력이나 이런 또 무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선수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최근에 철인 3종 경기 고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목적이 개정됐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스포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선수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너무 과잉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어린 나이에 스포츠를 하겠다고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엘리트 스포츠 영역으로. 유니세프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아동이 스포츠를 어떻게 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스포츠가 나중에 '평생의 밥벌이'가 되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승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들이 지침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는 엘리트 스포츠에 진입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저변이 넓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너무 엘리트에만 집중되는 스포츠를 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드물고, 오히려 큰 저변 속에서 선별해서 더 좋은 선수들을 찾아내는 방식 그런 것들이 더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그런 방향에서 인식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권고했습니다.

북한 기지개? 스포츠 시동 걸고 외교전 본격화할까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할 의향을 보이면서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계기로 국경을 개방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최설희 외무상이 참석하는 등 외교전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19~27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한다. 또 다음달 23일~10월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참가신청도 마쳤다. 북한은 2026년 월드컵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은 다음달부터 열리는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 참가를 신청했다가 돌연 불참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북한 축구협회가 최근 U-23 아시안컵 대회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FC는 북한의 불참 통보 시기나 이유에 대해선 “북한 축구협회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은 축구 예선을 겸하고 있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북한의 월드컵 예선 참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할 결심을 한 것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국제공론화시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듯 북한은 지난 1일 평양에서 ‘장애자(장애인)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를 개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세계 유일하게 1인 독재자의 3대 세습국가로서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도 불허하면서 더욱 고립된 측면이 있다. 지난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선 북한의 외교 우방인 아세안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맞춰 국경을 개방하고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7월 27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각각 초청했으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방상과 함께 무기전시회장을 찾아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전에 시동을 건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해 외교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카자흐스탄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는 10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엔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이란 우리정부 당국의 예상도 나왔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최설희 외무상이 직접 참석한다면 양자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 북한의 유엔 연설은 26일 오전 시리아, 바레인, 교황청에 이어 4번째 순서로 예정돼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최 외무상은 아직까지 국제무대에 나서 연설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에 리수용 외무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직접 연설했지만 2019년부터 김성 대사가 연설해왔다.

한편,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11일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북한이 매우 조만간 국경을 공식 개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우선 개방은 북한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이미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 박인비, IOC선수위원 한국후보 내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여자 골프 선수인 박인비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14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원로회의를 열고 박인비를 한국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인비는 지난 10일에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원로회의가 추천한 박인비를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인비가 선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체육회는 박인비를 이달 안에 IOC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IOC 선수위원은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에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이번 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골프 박인비(35), 태권도 이대훈(31), 배구 김연경(35), 사격 진종오(44), 배드민턴 김소영(31) 등 모두 5명이었는데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5명을 대상으로 30분씩 비공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선수위원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벌어진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위원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끝으로 8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등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남자 배구대표팀, 30년 만에 U-19 세계선수권 동메달 쾌거

19세 이하(U-19) 남자 배구대표팀이 30년 만에 국제배구연맹(FIVB) 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김장빈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산후안에서 열린 미국과 3~4위 결정전에서 세트 점수 3-1(25-18 25-19 21-25 25-23)로 승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1일 이란에 세트 점수 1-3으로 패해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이날 강팀 미국을 만나 1세트부터 우월한 경기를 펼쳤다.

14-12에서 미들 블로커 장은석(속초고)이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 성공했고, 이후 상대 공격 범실로 점수 차를 벌렸다.

1세트를 가져온 한국은 2세트에서도 흐름을 이어갔다.

세트 중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점수 차를 벌리며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한국은 3세트를 내주며 추격을 허용하는 듯했으나, 4세트를 접전 끝에 가져오며 승리했다.

한국은 4세트 23-21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이우진(경북체고)이 불안하게 서브 리시브를 했지만, 직접 강타를 때려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후 연속 득점을 허용한 한국은 24-23으로 쫓기다가 미국의 서브 범실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주장 윤서진(수성고)은 1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이우진이 15점, 장은석이 11점으로 활약했다.

윤서진은 경기 후 FIVB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지 매우 오래됐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 감격스럽다"라고 밝혔다.

리베로 강승일(대한항공)은 대회 베스트 리시버상을 수상했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건 동메달을 차지한 1993년 이스탄불 대회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최태웅(현 현대캐피탈 감독), 석진욱(전 OK금융그룹 감독), 장병철(전 한국전력 감독) 등이 활약하며 메달을 땀다.

프랑스는 이란을 세트 점수 3-1로 꺾고 우승했다.

"어떤 여자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 파도 휩쓸린 70대 구조한 女유도선수



국가대표 출신 여자 유도선수가 파도에 휩쓸린 70대 남성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화제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청 유도팀 소속 양서우 선수는 지난 5일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 A씨(78·남)를 구조했다.

이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이안류 현상으로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파도에 휩쓸렸다.

A씨의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원을 기다리던 중에 상황을 목격한 양서우 선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했다.

양서우 선수의 선행은 A씨의 딸이 최근 순천시 체육산업과로 전화를 걸어와 이날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고 양 선수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며 알려졌다.

양 선수가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 주변에서 유도 선수라는 얘기를 들은 A씨 가족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순천시에 전화 연결을 한 것이다.

A씨의 딸은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아버지를 구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선수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2년 전 강유정에서 양서우로 개명한 그는 2021년 국가대표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여자 유도 48kg급 경기를 앞두고 개체 통과를 위해 삭발을 하는 투혼을 보이기도 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SPL 개막 D-1] '연봉 1조'까지 제안...유럽을 집어삼키는 사우디의 '오일 머니'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661>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촌 입촌하다 뺑소니 의심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7790&ref=A>

바둑 태극전사들, AG '금메달 사냥' 앞두고 진천선수촌 입촌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04300007?input=1195m>

수원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1_0002410794&cID=14001&pID=14000

신지애, AIG 여자오픈 3위...한국 선수 2년 만에 '메이저 무관'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01900007?input=1195m>

대한민국 선수단, 울란바토르동아시아청소년대회 위해 14일 출국

<https://www.news1.kr/articles/5139837>

김자인, IFSC 세계선수권 콤바인 5위...올림픽 티켓 11월 재도전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2031100007?input=1195m>

여학생 성폭행한 10대男 “사춘기 일탈...야구선수가꿈” 선처 호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DNLNYUY>

토틀넘 주장 손흥민, 선수단 첫 감동 연설 "같은 목표 향해 같은 발걸음 나아가자!!"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75891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